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9호 【루계 제23021호】 주체99(2010)년 3월 10일(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특별감사문을 보내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워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특별감사문을 보내신 소식을 중국과 로씨야의 통신이 6일과 7일에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년동안에 공장을 성과적으로 현대화하고 16년동안 중단되였던 생산을 재개한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특별감사문을 보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의 로동계급은 이번에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살책동에 광분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쳐갈겼으며 그 어떤 원쑤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기업소에서 비날론설유, 농약과 물감등 화학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나라의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한몫 단단히 할것을 호소하시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도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기념준비위원회 도이췰란드에서 결성

태양절기념 도이췰란드준비위원회가 2월 6일 베를린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 도이췰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디레르 롤레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에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이 깃든 선물

주체혁명위업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며 받드는 세계 5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은 천출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진귀한 동물들을 선물로 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매혹되여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층의 저명한 인사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그이께 올린 선물동물들은 짐승류 72종, 조류 35종, 량서파충류 29종, 물고기류 80종 등 도합 200여종에 근 1 700마리에 달한다.

선물동물들마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기쁨과 행복속에 계시기를 바라는 만민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사상과 령도의 거장이시며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며 이 세상의 온갖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로 올리고있다.

여러차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는 주체74(1985)년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눈이 특별히 크고 동공이 발달되여 밤에도 활동하는 귀여운 밤원숭이를 비롯한 여러종의 동물을 선물로 올리였으며 그후에도 수차에 걸쳐 서우를 비롯한 수십마리의 동물들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로씨야 전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쩐은 주체92(2003)년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2월 16일을 맞으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로씨야의 오를로브원종말들을 보내여왔으며 몽골 전 대통령 남바린 엔흐바야르는 주체96(2007)년 7월 몽골에서 행운과 축복의 길수로 여기는 《8》을 상징하여 8필의 몽골종말을, 적도기네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는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재빛붉은꼬리앵무를 선물로 올리였다.

노르웨이공산당 트롬스주위원회 위원장이였던 균나르 크리스티안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계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 북극여우를 선물로 선정하였으며 파키스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파루크 페르즈 한은 자기 나라의 특산인 푸른바다거북을, 에티오피아 전 부수상 겸 국방상 테페라 왈와는 세차례에 걸쳐 여러 마리의 진귀한 아프리카 사향고양이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내여왔다.

선물동물들가운데는 중국 길림성 훈춘현인민정부(당시)와 로씨야 모스크바동물원, 스웨리예 콜모덴동물원경영회사, 뻬루 국립동물원에서 보내여온 길림매화사슴, 금꿩, 흑고니, 카나다기러기, 작은늑대, 검은손성이, 감는꼬리원숭이 등도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린 선물동물들에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들과 인민들은 자기들의 뜨거운 마음과 온갖 지성을 다 기울이였다.

주체70(1981)년 2월 명절에 즈음하여 제일먼저 4마리의 흰공작을 선물로 보내여온 타이 그란드꼬국제무역상사 사장 프라시트 포타스톤은 우리 타이에는 흰공작을 아주 귀한분에게만 드리는 풍습이 있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스웨리예 스칸센동물관 관장 요나스 왈스트램은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창건 40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동물관을 선물로 올린 때로부터 20여년동안 10여차에 걸쳐 160여종에 수많은 진귀한 동물들을 선물로 보내여왔다. 또한 몽골가축발전지지 즈. 쌈브기금 회장 쓰. 쑤렌자브, 체스꼬 쁘라하동물원 원장 보흐미르 꾸랄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의 인사들이 붉은털염소, 코르샤크여우, 싸이크스원숭이, 뿔꿩, 히말라야꿩, 오랑우탄, 아메리카표범, 흰올빼미, 붉은캉가루 등 갖가지 동물들을 선물로 올리였다.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와 축원의 마음은 해외동포들이 올린 선물동물들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돐에 즈음하여 중국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공사 총경리 최수진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에 대한 열화와 같은 칭송의 마음을 담아 용맹과 신비함의 상징으로 일러오는 흰범 한쌍을 선물로 올리였으며 총련 오이따현 벳뿌시지부 상임고문위원장 최성교는 수십마리의 희귀한 개품종들을 그이께 올리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였던 최청산을 비롯한 세계각지의 해외동포들도 수많은 동물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선물로 올리였다.

절세의 위인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마음이 어린 선물동물들은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의 중앙동물원에 보금자리를 잡은후 많은 새끼를 퍼쳐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선물동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따르고 높이 받드는 만민의 마음을 위인칭송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진행되였다.

최룡해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리경선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김영철, 실장 원동철, 소장 오익환, 강철직장 초급당비서 리혁만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료해하시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1년사이에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주체철생산기지에 의거해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금속공업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황철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수령결사옹위와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강철증산으로 보답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폭발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담보하는 밑뿌리가 될것을 바라는 당의 뜻을 명심하고 늘어나는 철강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생산공정들의 기술개건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고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현대화, 과학화를 전망성있게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여 모든 생산공정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하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업소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황철로동계급에 대한 당과 수령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든 종업원들이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으로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며 당창건 6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철소식

1.4분기 압연강재생산계획 빛나게 수행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직장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4분기 압연강재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급선무로 나서는것은 금속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것입니다.》

강선의 봉화를 김철의 불길로 이어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공동구호의 정신을 심장에 새긴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생산을 힘있게 다그쳤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모든 생산공정들에서 우리식의 합리적인 생산체계를 도입하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단위시간당 압연강판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였다.

만능압연기작업반의 조종공들은 교대당 작업실적을 부쩍 높이는 한편 다음교대의 생산준비까지 말끔히 하여주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롤용착작업반원들은 완강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2월 한달 기간에만도 4개의 완성압연롤을 용착재생하여 생산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롤세척작업반에서는 완성압연기의 지지롤베아링함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압연강재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열간압연직장에서 1.4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은 올해를 김철이 일을 치는 해로 되게 하기 위해 떨쳐나선 이곳 련합기업소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며 일심단결의 정신력의 위력을 과시한 커다란 성과이다.

지금 열간압연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공격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총진군해가고있다.

본사기자 주창선

우리 혁명무력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한 일군들의 반향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며 인민군대의 사명은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은 지금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미제와 그 추종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타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총알받이인 남조선괴뢰들은 지난 3월 8일 비상발령과 동시에 범죄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놈들이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들이치기 위한 선행침략전쟁연습, 핵시험전쟁연습이다. 화약내가 짙게 풍기는 이런 무분별한 불장난소동으로 하여 이 땅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격전전야의 긴장한 한초한초가 흘러가고있는 준엄한 이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평화를 귀중히 여기지만 결코 구걸하지는 않는다. 평화를 바라지 않고 불을 즐기는 호전광들과는 군사적힘으로 맞불어 결산을 보자는것이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드높은 혁명적기개이다. 원쑤들이 총으로 위협하면 대포를 내대고 핵으로 공갈하면 강한 핵억제력으로 맞서는것은 희세의 천출명장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우리 인민군대의 고유한 대응방식이다.

우리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승리의 기치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행복을 지켜 혁명의 총, 계급의 총을 억세게 틀어잡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은 멸적의 의지로 세차게 높뛰고있다.

원쑤들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가소롭게 날뛰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강의한 정신력이 있으며 원쑤들의 그 어떤 무모한 도발과 침략도 단매에 짓뭉개버릴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타격력이 있다.

만약 놈들이 감히 우리 조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선군의 위력으로 다지고다져온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활화산처럼 터칠것이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섬멸하며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

백두산총대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한 우리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증오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킬것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서 지적된것과 같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끌끌내 벌려놓았다. 조성된 정세는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만약 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우리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정의의 통일성전에 용약 뛰여들어 도발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로 가슴을 끓이고있다. 우리 로동계급의 무쇠주먹은 자비를 모른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억세여지고 단련된 우리 탄부들의 무쇠주먹은 적들의 숨통을 일격에 끊어버릴것이다.

석탄증산으로 원쑤들에게 철추를

련합기업소의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은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안고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한결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2.8직동청년탄광을 찾으시여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는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큰 규모의 대상공사들을 전망성있게 내밀면서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겠다. 계획규률, 재정규률, 로동행정규률을 철저히 확립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주도세밀하게 해나감으로써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겠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은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석탄증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우리 로동계급의 정신력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겠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지배인 문명학

애국투쟁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겠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한 우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이 격동되여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시험전쟁연습이다. 지금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방대한 병력과 최첨단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군사훈련을 벌리다가 일단 기회만 조성되면 그것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실전으로 전환시킬것을 꾀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전체 혁명무력에 침략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할수 있도록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한것은 지극히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평화애호정책과 성실한 노력에 무분별한 핵시험전쟁연습을 감행하는것으로 도전해나선 내외호전광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에 닿고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여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소중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이 귀중하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과 핵문제해결에 필수적인 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광란적인 북침전쟁불장난을 감행하는자들을 우리는 추호도 용납치 않을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미제와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의 총포성을 터치면서 그 무슨 《평화》와 《대화》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것으로서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며 저들의 반통일적이며 침략적인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한낱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일군들은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 단체들과 련대하여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준렬히 폭로단죄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전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 우리는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미제와 남조선보수패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을 안고 내외호전광들의 악랄한 도전을 민족단합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의 선봉에서 싸워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안경호

—평양기관차대에서— 김진명 찍음

문 명 을 떨 치 자

사회주의문명의 첨단에 올라선 향산호텔을 돌아보며

문명강국에로 향한 조국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기쁨넘친 소식이 터졌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향산호텔이 희한하게 개건되여 세계앞에 새 모습을 드러낸 소식은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 마음 설레이게 한다.

향산호텔의 새 모습은 고난과 시련속에서 남달리 고생을 많이도 겪은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려는 우리 당의 리상이 어떤 높이에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되고있는가를 증명하는 생동한 화폭이다.

2010년 2월의 묘향산에서 울려퍼진 최상급의 호텔개건소식과 함께 사회주의문명의 새로운 포성이 온 나라 강산에 장엄하게 메아리쳐간다.

1

우리의 문명수준을 세계에 보여주는 첨단건축물이 묘향산에 일떠섰다.

지난해에는 묘향산에서 번듯한 등산도로가 개통되여 인민의 웃음꽃을 피워주고 동해기슭의 마전호텔이 태여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올해에는 향산호텔이 21세기 새 모습으로 개건되여 세상을 놀래운다.

1980년대 중엽 묘향산의 이름을 자랑높이 떨치며 하늘높이 솟아오른 때로부터 수십년세월 사람들의 생활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은 향산호텔이 오늘 21세기 건축의 최고수준을 돌파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준공의 테프를 끊은것은 얼마나 경사로운 일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지금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을 잘 살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한번 본때있게 일하여 가까운 앞날에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운것없이 잘 살게 하고 모든 면에서 보란듯이 내세우자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사회주의문명의 첨단에 오른 호텔로 발걸음 옮기니 우리 조국이 올라선 새로운 높이가 눈앞에 보인다.

겉모양부터 사회주의멋이 가득 차넘치는 호텔이다.

묘향산의 기묘한 봉우리들을 련상케 하는 건물모양에 흰색, 푸른색의 대동강타일이 조화롭게 어울린 건축물의 멋진 풍경을 보면 우리 식으로 창조된 최고의 걸작이라는것이 첫눈에 알린다.

묘향산의 풍치에 잘 어울리면서도 우리 인민의 고상한 문화정서적미감에 꼭 맞고 세계에 앞서나가려는 시대의 지향이 확연히 풍겨오는 주체건축예술의 새 화폭이다.

묘향산의 맑은 물, 맑은 공기처럼 신선한 기운이 건물의 끌에서 끌까지 쭉 흘러내리는것을 가슴후련히 느낄수록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내 나라의 호텔이구나 하는 긍지와 자부가 차넘친다.

유리로 된 회전문이 손님들을 기다리며 빙빙 돌아가고있다.

원형자동문을 지나 홀에 들어서니 그야말로 눈부신 황홀경이다.

앞을 보니 비로봉의 이선남폭포가 그대로 옮겨진듯 폭포수가 쏟아져내리고 올려다보니 묘향산하늘의 별들이 모두 내린것처럼 은백색의 눈부신 불빛들이 무수히 반짝거린다. 이채롭게 형성된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모두가 묘향산의 선남선녀들처럼 아름답게 보인다.

건축물의 모양에서만 최고수준이 느껴지는것이 아니다.

승강기를 타고 호텔방에 들어가면 상쾌한 공기에 대한 쾌감, 넓고 시원한 공간에 대한 애착감이 마음을 끌어당기고 국부조명들이 주는 따스한 안정감에 마음 절로 무르녹고 원하는대로 모든 편리를 보장해주는 봉사환경에 경탄을 금할수 없으며 걸음마다 유쾌하고 다감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방안의 구조와 문화성에 온갖 피로가 씻은듯 가셔진다.

모든것이 최고급수준이다.

건축요소들의 조형화, 예술화를 완전히 실현하면서도 손님들의 편의를 최상으로 도모할 만단의 준비가 다 갖추어져있는 백수십개의 호실들과 회전전망식당, 오락장, 극장, 치료체육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현대적인 수영장과 문화장소들… 하나에서 백까지 모두가 최첨단이다.

세계적으로 3성, 4성, 5성… 하면서 호텔수준을 짚는다고 하지만 향산호텔은 여기에 비길수 없다.

산좋고 물맑은 땅에서 태여나 사회주의생활의 터전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내 조국의 명산 묘향산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다.

만민의 축원의 마음으로 가득찬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볼 때 가슴속에 터져나는 수령복에 대한 긍지는 얼마나 높고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유구한 력사의 문화재보에 대한 자랑 또한 얼마나 큰가.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인민의 명산, 조선의 명산, 세계의 명산에 자리잡은 호텔이 어제날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21세기의 새 모습으로 개건되였으니 이 얼마나 긍지높은 현실인가.

이것은 결코 단순한 체험이 아니다.

희한하고 훌륭하고 멋있다는 경탄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우리 수령님의 체취가 뜨겁게 깃들어있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경모하여 만민이 찾아오는 곳, 민족의 슬기로운 력사가 깃들어있을뿐아니라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김일성민족의 긍지가 집대성되여있는 묘향산에 와서 세계으뜸의 문명이란 어떤것인가를 체험하는것은 참으로 가슴뜨거운 일이다.

번쩍거리는 향락의 세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조선에도 이런 황홀한 건축세계가 있다는것을 믿기 어려울것이다. 향산호텔에서 하루밤을 자면서 사람마다 우리가 건설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를 알게 될것이다. 또한 조선이 세계를 향하여 나간다는것이 무엇인가를, 강성대국에서 산다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절감할것이다.

이런 창조물을 고난을 헤쳐온 조선사람들이 내놓았다는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문명》과 《개화》에 대하여 떠드는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최상의 향유세계를 펼쳐놓고 호텔문을 연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눈부신가.

주체의 사회주의락원은 인간이 가장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세상이다. 우리에게는 자본주의 억만장자들이 꿈꾸는것보다 더 황홀한 향유의 세계를 창조할 포부가 있고 계획이 있으며 또한 그럴 능력이 있고 눈앞의 현실로 실지 펼쳐놓고있다는것이 증명되고있다.

향산호텔을 통하여 세계는 알게 될것이다.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문명한 사람들인가, 생활관습자체가 깨끗한 조선사람들의 문명에 대한 지향이 얼마나 높으며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자존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게 될것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이란 얼마나 문명한 세상인가를 또한 얼마든지 상상할수 있을것이다.

우리 민족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화승총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여 침략의 대상으로만 되던 가슴아픈 비극만이 있은것이 아니였다. 해방전 우리 나라에 왔던 외국인이 손님맞이할 려관 하나 변변한것없이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을 무지몽매라는 말에 비유하면서 《지게군소년》이라는 조각을 빚어가지고 귀국의 길에 올랐다는 피눈물의 이야기가 우리 나라 력사에 소리없이 깃들어있다. 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고 문명한 《백의민족》의 존엄이 남에게 짓밟히고 천대받는것이 서러워 잠을 깨세 잠을 깨세 남의 부강 부러워말고 너도나도 떨쳐나 문명개화 이룩하세라는 눈물의 《동심가》를 남긴 애국시인도 있었다.

나라의 문명정도는 수령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동강문화를 창조한 존엄있는 민족으로서 남들이 부러움도록 사회주의생활을 꽃피우며 세계에 앞서나가려는 지향으로 가득찬 인민의 소원을 마음껏 풀어주시려고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

해방후 문맹퇴치운동으로 우리 인민을 무지몽매의 세계에서 잠깨워주시고 사회주의건설자라는 긍지높은 부름과 함께 조선인민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세계앞에 떳떳이 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를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땅에 문화예술의 전성기, 건축예술의 전성기를 불러오시고 고난의 눈보라를 뚫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선군문화의 높은 세계를 창조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 영원토록 잊지 못할것이다.

다박솔언덕에서 총대를 더 높이 드시고 조국수호의 길에 나서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우리 조국을 정치강국, 군사강국의 높은 지위에 올려세우고 과학기술강국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였으며 드디여 사회주의문명의 최첨단을 펼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강성대국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호텔에 대한 문제는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향산호텔개건에 대한 전투명령을 내리신것이였다.

모란봉극장과 평양대극장, 대동문영화관의 개건을 통하여 인민을 어떤 훌륭한 극장과 영화관의 좌석에 앉히는가를 보여주신것처럼, 만수대거리 살림집건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훌륭한 집에서 살것인가를 보여주신것처럼,

옥류관, 청류관의 개건을 통하여 우리 당이 사랑하는 인민들을 어떤 식탁에 앉혀줄것인가를 보여주신것처럼,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건설을 통하여 어머니당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문명의 세계를 펼쳐줄것인가를 환히 비쳐주신것처럼 선군조선의 문명의 높이가 어떤것인가를 세계앞에 떳떳이 보여주시려는 백두의 자존심으로 호텔개건을 명령하신것이다.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꾸려나가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념원이 단풍나무 한그루에도 비껴있는 조국의 명산에 솟아있는 호텔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간곡한 가르치심으로부터 시작된 뜻깊은 개건공사였다.

단풍든 묘향산을 굽어보시며 **《로대우에 올라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하고 구수하게 시를 읊으시던 수령님의 음성이 현대적인 호텔의 저 창문마다에서 메아리쳐오는것만 같다. 사회주의문명의 대문을 활짝 열어가는 내 조국의 경사를 우리 수령님께서 뜨겁게 축복해주시는것 아닌가.

사대와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드니 5,000년력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라는 우리 수령님의 조국애의 노래가 문명의 첨단우에서 더욱 긍지높이 울리고있지 않는가.

묘향산아, 전해가라.

어버이수령님의 념원 꽃핀 선군조선의 경사로운 이 사변을 너의 천연암반우에 새기여 후손만대 영원토록 전해가라.

2

우리 조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가.

우리의 리상은 무엇을 향하여 나래치고 있는가.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서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의 포성을 높이 울리는 우리의 조국은 문명강국을 목표로 상승하고있다.

문명,

승리의 마지막봉우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모든 승리의 절정우에 이 두 글자가 빛난다.

모진 고난도 웃음속에 헤치면서 돌파해온 우리의 투쟁은 결국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의 덕을 주기 위한것이다.

CNC노래를 부르며 달리는 우리 조국의 발전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 인민에게 안겨줄 유족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생활은 세상사람들이 꿈에서조차 그려볼수 없는것이다.

개건된 향산호텔의 모습은 위대한 어머니당이 인민에게 안겨줄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의 새로운 높이를 보여준다.

불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여 오늘날 가늠할수없이 넓어지고있는 문명의 세계는 인간의 사상정신생활로부터 물질생활, 문화도덕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데가 없다.

문명이라는 말은 고상한것이지만 인간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는 썩어빠진 부르죠아문화의 범람으로 하여 인류문명의 길은 피로 얼룩져왔다.

이러한 세계앞에 주체의 사회주의의 신선한 향취를 뿌리며 싱싱하게 꽃펴나는 우리의 문명은 한없이 훌륭하고 소중한것이다.

정신도덕적인 면에서 력사의 전기간 언제나 세계에 앞서있은 인민의 문명수준을 사회생활면에서도 물질생활면에서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우리 당의 리상을 새겨볼수록 가슴 설레인다.

우리가 말하는 문명은 향락이나 호화라는 단순한 말과 의미가 다르다. 인간의 자주적 삶과 존엄에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것을 다 포함한다. 인간의 가장 고상하고 최상급의 문명을 위하여 우리는 그처럼 완강하게 사회주의신념을 지키고 그처럼 꿋꿋이 사회주의생활을 지키며 승리해온것이 아니던가.

허리띠를 조여매고 고난의 길을 헤쳐왔으며 사회주의지상락원의 전경도를 아름답게 그리면서 번영의 길을 닦아온 우리가 이제는 가슴을 쭉 펴고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문명에 대하여 소리높이 말하게 된것이다.

자주의 대, 선군의 뿌리에서 피여나는 사회주의문명은 고난과 시련의 불비속을 헤쳐온 조선로동당이 인민에게 안겨줄 사랑중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며 혜택중의 최상의 혜택이다.

인민생활향상문제가 전면에 나선 오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우리 당의 구호는 더욱 뜨겁게 울리고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누구나 힘껏 일하여 잘 살라!》는 구호를 건 당들도 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드는 우리 당의 목소리는 참으로 뜨겁고도 귀중하다.

향산호텔을 통하여 우리 당이 목표로 내건 인민생활향상의 기준이 어느정도인가를 알고 모든 일군들이 신들메를 든든히 조여매고 따라설것을 바라는 최고사령부의 엄숙한 신호성이 울리고있다.

아프리카타조가 우리 조국의 풍토에 순화되여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타조가금업의 새 력사가 펼쳐진 전설같은 현실, 철갑상어와 연어가 우리의 바다에 길들여진 꿈같은 현실을 무심히 대하지 말라.

자라, 메추리를 비롯한 희귀한것들도 모두다 옥류관에 보내여 우리 인민들이 맛보게 해주시고 봉사에서의 새로운 화폭을 펼치는 보통강상점을 수도의 한복판에 꾸려주신 은혜로운 사랑을 생각해보자.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에 대한 우리 당의 기준은 높다.

이제는 우리가 인민생활을 놓고 국력을 말할 때가 되였다.

식료품생산의 CNC화, 무균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수준에 이른 룡성식료공장, 초고온생산공정을 따라 쏟아져나오는 맛좋은 우유제품을 보시면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심중을 헤아려보자.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수준을 룡성식료공장수준에 따라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최고사령부의 전투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결사관철하는 길에서 인민생활향상의 결정적돌파구가 열리게 된다.

우리 인민이 먹고 쓰고살 모든것들은 그 질과 문화성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생활향상의 기준이다.

지금 CNC바람이 불고있는 평양곡산공장의 현실은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 펼쳐질 문명의 종소리를 높이 울려주고있다.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는 마감공정까지 제품에 사람손이 닿지 않게 위생성이 100% 보장되고 포장도 멋있는 식료품들이 인민들의 집집에 가닿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있다.

대흥단의 눈바람속에서 몇알의 구운 감자로 떼식을 이으시며 걸어오신 준엄한 행군길, 몇차례의 전쟁을 겪고도 남을 격렬한 반제계급성전의 길을 그렇게도 꿋꿋이 돌파해오신 우리 장군님의 행군길앞에는 바로 인민생활이라는 하나의 목표와 리상이 빛나고있었음을 우리 얼마나 가슴 미여지게 새기게 되는가.

위대한 수령님 맡기고가신 조국을 위성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주체철강국, CNC강국, 비날론강국으로 만들어나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무한대한 사색속에는 인민에게 안겨줄 문명에 대한 지향과 결심이 불타고있다.

사랑하는 나의 인민에게 세상에서 가장 문명한 생활을!

바로 이것이 오늘도 초강도강행군길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끓고있는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이 세상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우리 인민은 옷을 하나 해입어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료리맛을 보아도 세상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귀한것까지 다 먹어보아야 하며 살림집도 려관도 호텔도 세계최상급으로 꾸리고 어깨를 쭉 펴고 살아야 한다는 자존심이 우리 장군님의 걸음걸음을 그렇게도 강하고 또 강하게 하는것 아니랴.

인민에게 봉사하게 될 자라료리시식회에 평범한 사람들을 《품평원》으로 앉혀주시더니 오늘은 또 개건된 향산호텔에 첫 손님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에 눈물솟은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였던가.

이 나라 천만식솔을 한품에 안고 초강도강행군길에서 마련해주신 행복의 진가를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인민의 심장에서 울리는 이 눈물의 토로를 걸음걸음 새기면서 초소마다에서 사회주의문명의 대문을 활짝 여는 일군이 충신이며 애국자이다.

사람들이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자면 그에 맞는 환경과 조건이 보장되여야 한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 문화정서적인 조건과 환경을 잘 꾸려 인민들이 생활적인 면이나 문화정서적인 면에서 공간이 없게 해주어야 한다는 어버이장군님의 말씀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있다.

창조와 혁신으로 보람찬 삶을 꽃피우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훌륭한 봉사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 때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더욱더 뜨겁게 분출될것이 아닌가.

사회주의문명!

이것은 참으로 신성하고도 귀중한 말이다.

자본주의문명은 몇몇 부유계층의것이지만 사회주의문명은 전체 인민의것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창조된적이 없고 창조할수도 없는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높이에 올라서려는 우리의 자존심은 높다.

《세계에 앞서나가리!》라는 민족의 자존심이 최대로 분출되는 격동적인 시대에 살고있는 동시대인들이여,

강성대국문패가 우리 세대를 지켜본다.

문명의 첨단에 오르는것은 신념과 락관에 관한 문제이다.

강성대국대문이 눈앞에 보이는 오늘 문명에 대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신념과 락관을 론할수 없다.

문명을 떨치자는것은 세계의 최고를 창조하자는것이다. 결코 돈이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다. 결심을 어떻게 하는가, 작전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첨단돌파의 첫걸음으로 된다는것을 현실이 증명하고있다.

문명의 높이이자 인간의 존엄의 높이이다.

사람들의 사고수준으로부터 지식정도와 풍모,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문명의 높이로 표현된다. 우리의 문명을 떨치자면 우리것을 세상에서 최고로 만들겠다는 배심으로 배우고 탐구하며 창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옷차림도 문화성있게, 언어도 고상하게, 례의도덕과 음식문화도 높은 수준에서 꽃피워나가자.

우리 사회의 문화수준에 어울리게 가정과 일터도 참신하게 꾸려나가는 모습으로 조국앞에 설 때 그대는 진정으로 강성대국에서 살아갈 자격을 갖추었다고 떳떳이 자부할수 있을것이다.

사회주의생활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땅에서는 어느 구석에도 남보다 뒤떨어진것이 존재할수 없다.

문명의 창조자도 향유자도 우리자신이다.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강성대국건설자의 존엄을 빛내여가는 공민들이여, 선군의 높은 언덕에 올라 온 세상이 쳐다보도록 사회주의의 아름다운 문명을 힘껏 창조하자.

문명의 첨단에 올라선 향산호텔에서 흘러내리는 사회주의문명의 향취가 우리가 사는 모든 거리와 일터, 명승지마다 차넘치게 하자.

인류문명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우리가 창조하고 향유하는 아름다운 문명으로써 사회주의문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훌륭할뿐아니라 가장 고급하고 가장 월등하다는것을,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뿐아니라 정신문화도덕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참다운 문명의 요람이라는것을 긍지높이 자랑하자.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혁명하는 법, 투쟁하는 법을 배우고 삶을 향유하는 법을 배운 우리 인민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더욱 문명할것이며 자기의 미래를 더욱더 아름답게 창조할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하자.

백두산민족의 자존심을 문명의 첨단돌파로 폭발시키자.

정치강국, 군사강국인 우리 조국이 더욱더 존엄높은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높이에 우뚝 올라설 위대한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천만군민이여, 앞으로!

본사기자 송 미 란

개 건 된 향 산 호 텔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주체건축예술의 새 화폭을 펼친 향산호텔

정 면 홀

복 도

특등실내부

회전식당

수영장

멸적의 기상안고 련일 혁신

형봉탄광 일군들과 탄부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한 형봉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멸적의 기상안고 석탄증산투쟁을 파감하게 벌리고있다. 지금 탄광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량의 석탄을 더 생산하여 굴지의 동력기지에 보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여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합니다.》

탄광구내에 나붙은 혁명적인 구호들과 전투적기백이 넘쳐나는 속보판들만 보아도 일군들과 탄부들이 어떤 정신과 투쟁기풍으로 막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가를 잘 알수 있다. 교대시간전에 한대의 탄차라도 더 뽑아내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는 탄부들의 불같은 투쟁열기속에 형봉갱, 중동갱, 대성갱을 비롯한 모든 갱들의 실적이 쭉쭉 오르고있다.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높이 세운 석탄생산계획을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면서 몇년이 걸려야 한다던 전망굴진공사들을 1년 남짓한 기간에 끌내고 석탄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대고조의 불씨를 안겨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초강도강행군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맨 앞장에서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남다른 자각과 혁명적열정은 이렇듯 탄광에 자랑찬 현실을 안아왔다. 일군들은 대고조전투의 선봉에 서서 탄부들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열기를 세차게 뿜어주었다. 채탄공들과 굴진공들은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 백걸음을 내디디며 채탄장과 굴진막장들에서 위훈을 창조하였고 지상단위의 로동자들은 돌격대를 뜻고 전망굴진막장으로 뛰여들었다.

지수움공사장에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은 차디찬 감탕속에서슴없이 뛰여들어 방대한 량의 감탕과 버럭을 처리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1년이라는 공사기일을 석달로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감동없이, 격정이 없이는 대할수 없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이런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속에 탄광의 석탄생산실적은 부쩍 뛰여올랐다.

뜻깊은 올해에 들어와 탄광의 전투분위기는 보다 앙양되였다. 탄광일군들의 전투작전과 지휘에서부터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탄광적으로 굴진총화를 매일 정상화하여 예비채탄장을 끊임없이 늘이고있는것만 보아도 일군들이 작전을 얼마나 주도세밀하게 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일군들은 모든 굴진소대들에서 전망목표수행을 위한 돌격전을 어떻게 벌리고있는가,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즉시에 대책을 세워나감으로써 굴진작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탄광의 굴진막장들에서는 련일 가슴후련한 굴진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또한 매일 설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면서 막장들에 전개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있다.

탄광의 모든 채탄중대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하루전투목표를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 명 천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자

공동사설에는 강재가 나와야 쌀도 나오고 기계도 나온다고 지적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금속공업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 강철전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철공업을 빨리 추켜세워야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들도 활성화할수 있고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새해전투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보낸 편지에 호응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선 각지 금속공장들의 로동계급은 지금 강철증산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떠밀고나갈 결의드높이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철강재생산을 늘이자면 전력, 석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높여야 한다. 전력, 석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철강재생산을 늘이는것이 곧 자기 부문은 물론 경공업과 농업을 추켜세우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금속공장들에 필요한 전력과 석탄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물동수송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금속공장들에 필요한 협동품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지금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금속공장들에서는 더 많은 파철을 요구하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더 많은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파철원천탐구사업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낡은 기계설비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대담하게 폐기할것은 폐기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은 현실에 들어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더 많은 파철을 모아 보내주도록 하여야 한다. 각지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과 동, 인민반의 주민들은 오늘날 한kg의 파철이라도 더 모아 강철전선에 보내주는 사람이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라는 자각을 안고 파철모으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철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높은 애국심을 발휘함으로써 금속공장들에서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국녀맹열성자회의 진행

【평양 3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녀맹열성자회의가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요구에 맞게 녀성혁명화를 다그치며 녀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회의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회의장에 나붙어있었다.

회의장에는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호보위하자!》, 《녀성들이여! 강성대국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나가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곽범기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 앞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99(2010)년 2월 2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회의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로성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황해북도녀맹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봉천탄광 녀맹초급단체위원장 신정숙, 통천군 읍초급녀맹위원장 김길순, 락랑구역 충성2동초급녀맹위원장 리매화, 덕성군 읍초급녀맹 부문위원장 박영숙, 배천군 봉량로동자구초급녀맹 부문위원장 리희복, 강서구역 학천리초급녀맹위원장 김명숙, 안주시녀맹위원장 김경옥, 삼지연군 리명수로동자구초급녀맹 부위원장 최향화, 함흥시 흥덕구역 룡연동초급녀맹위원장 정혜영,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우계향, 천리마구역 봉화동초급녀맹 부문부위원장 송경혜, 신의주시녀맹위원장 박순정, 희천시녀맹위원장 김춘희, 안악군 로암리 녀맹원 강화식, 사리원시 주일락아소 녀맹원 김영희, 중구역종합식당 녀맹원 라정옥, 경원군녀맹위원장 방옥화 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에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력사적업적을 높이 평가하시고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녀성운동을 힘차게 전진시키며 녀맹사업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전체 참가자들은 녀맹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녀성들이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력량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고전적로작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녀성운동은 승리와 영광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우리 녀성들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정신력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실 일념안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데 지성을 바치였으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적극 지원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녀맹돌격대활동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녀맹돌격대가 수많이 무어져 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녀맹돌격대활동과정에 황해북도, 평안북도, 강계시, 신의주시, 김책시, 향산군 녀맹위원회와 대흥청년영웅광산, 재령, 은률광산, 운곡, 형봉탄광 초급녀맹위원회를 비롯한 60여개 단위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이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등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지난 기간 이룩된 성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녀성동맹조직들과 전체 녀성들앞에는 격동적인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한쪽 수레바퀴를 더욱 힘있게 떠밀고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녀맹조직들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 모든 녀맹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랑, 불굴의 정신력을 지니고 대고조진군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이 희천발전소건설장과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녀맹돌격대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된 《총성의 7월11일붉은기동, 인민반》 쟁취운동과 《선군생활문화모범가정》 창조운동 등을 활발히 벌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생활문화를 확립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각급 녀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녀맹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송풍기, 가속기가 되며 군중의 심장에 남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일군이 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면서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승리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회의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농기계수리를 전투적으로

강남군농기계작업소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한 강남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멸적의 기세로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수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리용률과 가동률을 높이자면 그에 대한 수리정비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모험적인 불장난소동에 분노한 작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쳤다.

—뜨락또르수리는 물론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사회주의협동벌에 발동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

이런 결심을 다진 지배인 박순철동무를 비롯한 작업소일군들은 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웠다. 일군들은 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전투지휘를 빈틈없이 하였다. 일군들도 종업원들도 전투장을 떠날줄 몰랐다.

수십대의 뜨락또르를 세워놓은 수리작업장에서는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작업소일군들은 림원진, 윤용선동무들을 비롯한 수리공들과 함께 기관수리시간을 앞당길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였다. 기관의 머리부를 비롯한 부분품들의 수리를 맡은 작업반원들도 서로 돕고 이끌면서 헌신의 땀을 바쳐갔다. 다른쪽에서는 조립공정을 맡은 작업반원들이 부속품들을 조립하느라 분초를 다투며 애쓰고있었다.

가공작업반에서는 여러가지 농기계부속품과 새로운 농기구를 생산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기대공들이 긴장하게 기대를 돌리며 뜨락또르수리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종류의 치차를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고있을 때 선반공들과 다른 기대공들은 침략자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두층갈이보습과 능률높은 새형의 씨뿌리는기계, 후치를 짧은 기간에 수십개나 생산하기 위해 열정을 기울이는 리철호동무와 농기계수리작업반원들은 또 얼마나 줄기찬 투쟁을 벌렸던가.

뒤바퀴축을 비롯한 부속품들을 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물동수송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금속공장들에 필요한 협동품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지금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금속공장들에서는 더 많은 파철을 요구하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더 많은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파철원천탐구사업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낡은 기계설비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대담하게 폐기할것은 폐기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은 현실에 들어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더 많은 파철을 모아 보내주도록 하여야 한다. 각지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과 동, 인민반의 주민들은 오늘날 한kg의 파철이라도 더 모아 강철전선에 보내주는 사람이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라는 자각을 안고 파철모으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철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높은 애국심을 발휘함으로써 금속공장들에서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농기계수리를 전투적으로

강남군농기계작업소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한 강남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멸적의 기세로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수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리용률과 가동률을 높이자면 그에 대한 수리정비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모험적인 불장난소동에 분노한 작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쳤다.

—뜨락또르수리는 물론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사회주의협동벌에 발동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

이런 결심을 다진 지배인 박순철동무를 비롯한 작업소일군들은 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웠다. 일군들은 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전투지휘를 빈틈없이 하였다. 일군들도 종업원들도 전투장을 떠날줄 몰랐다.

수십대의 뜨락또르를 세워놓은 수리작업장에서는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작업소일군들은 림원진, 윤용선동무들을 비롯한 수리공들과 함께 기관수리시간을 앞당길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였다. 기관의 머리부를 비롯한 부분품들의 수리를 맡은 작업반원들도 서로 돕고 이끌면서 헌신의 땀을 바쳐갔다. 다른쪽에서는 조립공정을 맡은 작업반원들이 부속품들을 조립하느라 분초를 다투며 애쓰고있었다.

가공작업반에서는 여러가지 농기계부속품과 새로운 농기구를 생산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기대공들이 긴장하게 기대를 돌리며 뜨락또르수리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종류의 치차를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고있을 때 선반공들과 다른 기대공들은 침략자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두층갈이보습과 능률높은 새형의 씨뿌리는기계, 후치를 짧은 기간에 수십개나 생산하기 위해 열정을 기울이는 리철호동무와 농기계수리작업반원들은 또 얼마나 줄기찬 투쟁을 벌렸던가.

뒤바퀴축을 비롯한 부속품들을 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물동수송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금속공장들에 필요한 협동품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지금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금속공장들에서는 더 많은 파철을 요구하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더 많은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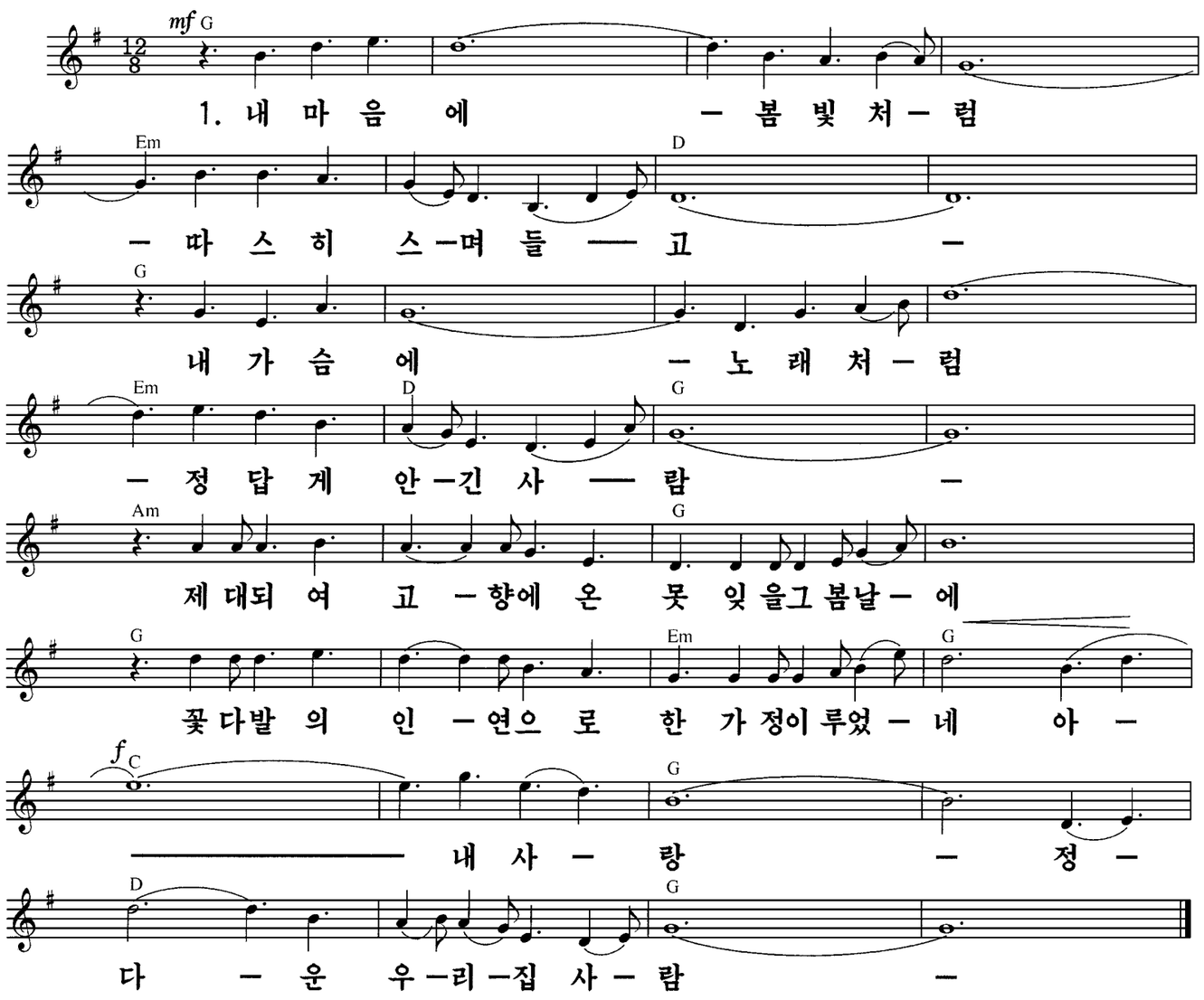
파철원천탐구사업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낡은 기계설비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대담하게 폐기할것은 폐기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은 현실에 들어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더 많은 파철을 모아 보내주도록 하여야 한다. 각지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과 동, 인민반의 주민들은 오늘날 한kg의 파철이라도 더 모아 강철전선에 보내주는 사람이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라는 자각을 안고 파철모으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철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높은 애국심을 발휘함으로써 금속공장들에서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서 승 호

우 리 집 사 람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2. 내 열정이 식을가봐 심장에 불을 달고
내 걸음이 뒤질가봐 떠밀어주는 사람
길이 험해 지칠 때면 앞에서 부축이고
일이 많아 지샐 때면 곁에서 잠 못 드네
아 내 사랑 고마운 우리 집사람

3. 내 인생에 동행자로 있어야 하는 사람
내 한생에 방조자로 없으면 안될 사람
행복의 배 함께 타고 생활의 노를 저어
비쳐주는 등대따라 영원히 같이 가리
아 내 사랑 귀중한 우리 집사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평양 3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것과 관련하여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핵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공화국정부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내놓은 때에 이러한 대규모전쟁연습을 강행해나선것은 엄중한 도발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미국에서 행정부는 바뀌였지만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힘으로 어째보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 사상문화적 침투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있다.

군사적위협과 경제제재는 평등한 대화와 량립될수 없으며 더우기 비핵화와 량립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없이는 군사적대결이 해소될수 없으며 군사적대결의 해소가 없이는 비핵화가 실현될수 없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 하는것이 다시한번 실증되였다.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여있다.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될것이다.

희천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

성, 중앙기관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의도와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에 맞게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대담하게 전개하며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어깨를 들이밀고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 시기 여러차례에 걸쳐 희천발전소건설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해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일대 진공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련관된 모든 단위들에서 필요한 건설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에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수십개 단위의 성, 중앙기관들에서 희천발전소건설 지원사업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와 애국적 열정을 불러일으켜 발전소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설비와 자재, 생활필수품들을 공사장에 보내줌으로써 건설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희천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하는것이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김일성고급당학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많은 원호물자를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내주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멘 앞장에 선 그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대흥지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자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량의 물자를 희천1호발전소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로력적위훈을 축하해주었다.

수많은 원호물자를 안고 룡림언제건설장을 찾은 중앙검찰소의 일군들은 군인건설자들과 어울려 일도 함께 하고 건설현장에서 경제선동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이 발전소건설에서 더 큰 위훈을 창조하도록 고무해주었다.

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건설자재와 많은 량의 생활용품들을 건설건재공업성려단 건설자들에게 보내줌으로써 희천발전소건설 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대성산지도국에서도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생활용품들을 비롯한 물자들을 마련하여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이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만수대창작사, 민주조선사, 조선중앙통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화학공업성, 인민경제대학,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농업출판사, 녀맹중앙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건설건재공업성, 교육성, 조선혁명박물관, 광복백화점, 평양교예단을 비롯하여 여러 성, 중앙기관들과 단위들에서도 희천발전소건설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지원사업에 고무된 발전소건설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의 결정적전환의 해인 올해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존경받는 《과일나무집》 주인

신천군 지남리 안형모로인의 집은 《과일나무집》으로 불리운다. 그의 집주변과 야산기슭의 과일나무들은 로인의 가슴속에 간직된 애국의 열정을 전하여준다. 그가 조국에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줄 마음으로 과일나무를 심고 가꿀 결심을 한것은 10여년전이였다. 과일나무가꾸기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기 위해 그가 지새운 밤이 얼마인지 모른다. 겨울에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땅을 걸구었고 나무모를 해결하기 위해 먼길을 걷기도 하였다.

정성담아 심고 애지중지 가꾼 사과, 배, 살구, 감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들에서 열매가 달릴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해마다 많은 과일을 탁아소와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줄 때면 그의 가슴은 더없는 긍지와 보람으로 설레인다.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후대들을 위해 땀을 바쳐가는 그를 누구나 존경한다.

로농통신원 리 광 춘

노르웨이적십자사대표단 도착

【평양 3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뵈르게 브렌데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르웨이적십자사대표단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는 오늘도 《화선길》을 걷는다

만경대구역 칠골3동 35인민반 전쟁로병 김윤식동무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경대구역 칠골3동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김윤식동무에게 은정어린 생일 여든돐상을 보내주시였다.

영광과 행복의 그날 김윤식동무와 그의 가족들은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장군님의 품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는 원군의 길을 더 힘차게 이어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어머니조국, 바로 그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도 있고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김윤식동무는 체험을 통해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려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부부가 다 전쟁로병들인 그의 가정에는 포연에 그슬린 두벌의 군복이 보관되여있다. 빛나는 훈장이 앞섶을 가득 채운 그 군복들은 단순한 추억의 상징이 아니라 김윤식동무로 하여금 전화의 그날을 언제나 잊지 않고 애국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떠밀어주는 힘의 원천으로, 자식들에게 전세대의 넋을 심어주는 가보로 되고있다.

참다운 새 삶을 안겨주고 투쟁의 위훈과 인생의 보람을 안겨준 고마운 조국을 위하여 한생을 화선병사의 자세로 사는것, 이것은 김윤식동무의 변함없는 지향으로 되고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생활의 길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해방전 화전민의 아들로 태여나 철부지 6살때부터 부모없는 설움속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고달픈 머슴살이로 피기 없이 시들어가던 그였다. 왜놈 아이들과 부자집자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불을 때주면서 창문너머로 글을 몇자 익힌것이 죄가 되여 앙상한 온몸이 온통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기도 하던 그 시절에 그의 가슴에 가득 고인것은 삶의 요람을 잃은 수난자의 설음과 눈물이였다. 어린 마음에 가득찼던 그 설음과 눈물을 가셔주고 버림받던 소년머슴, 소년화부에게 행복한 새 삶이 안겨진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그때부터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누리는 행복이 커갈수록 정녕 다시는 잃어서는 안될 조국의 귀중함을 뼈에 새겼기에 그는 일찌기 손에 총을 잡았다.

(삶과 운명의 요람인 조국수호의 길에 한생을 바치자.)

이렇게 되여 그의 운명은 총대와의 남다른 인연속에 흐르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자 김윤식동무는 사생결단하고 싸움에 나섰다. 그는 구분대정치일군으로서 림진강도하전투, 서울해방전투, 대전해방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불사신마냥 싸웠다.

척추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그는 전승의 그날까지 군복을 벗지 않고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 대공방어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 많은 위훈을 세웠다.

전후에도 그는 피로써 사수한 조국의 미래를 헌신으로 가꾸어갈 불타는 열의안고 오래동안 만경대혁명학원의 정치일군으로 복무하면서 유자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일에 자신의 열정과 량심을 다 바쳐왔다.

—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김윤식동무가 자식들에게 늘 하는 말이다.

1991년 12월 김윤식동무는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게 된것이다.

뜻깊은 그날 김윤식동무는 평범한 자신을 어엿한 정치일군으로 키워주시였으며 10여차례나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는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을 거듭거듭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못 잊을 영상을 다시금 그려보았고 영원히 마음의 군복을 벗지 않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어 생의 마지막날까지 화선병사로 살며 투쟁할 각오를 굳게 다지였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20년동안 그는 하루와 같이 원군길을 걸어왔다.

전쟁시기에 부상당한 상처로 하여 불편한 몸이지만 그는 병사의 걸음새, 병사의 자세로 애국의 길을 힘차게 걸어왔다.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늘 애국의 일감을 두고 애를 쓰고 지성을 다 바쳐가는 그에게 자식들이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많은데 좀 쉬는게 어떤가고 할 때면 김윤식동무는 말하군 하였다.

《우리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 빛난 훈장이 가슴을 가득 채운 보람찬 내 삶을 생각할수 없다. 평범한 로병인 나를 열병식장의 로병종대에도 세워주시고 전국로병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대회장들에 내세워주시였는데 나이가 많다고 병사의 자세가 흐트러져서야 되겠니.》

이런 마음을 안고 한생을 한모습으로 사는 김윤식동무이다.

그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가족예술선동대를 무어가지고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군인건설자들이 있는 강성대국건설의 중요전투장들로 끊없이 이어졌다.

바치는 마음도 뜨거운것이였지만 거기에 안겨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더더욱 큰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윤식동무의 애국적소행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거듭 감사를 보내주시였으며 남편과 함께 전화의 그 시절처럼 살며 일하고있는 그의 안해 강영순동무에게는 사랑의 일혼돐생일상까지 보내주시며 로병부부의 삶을 뜨겁게 축복해주시였다.

하늘같은 그 믿음,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김윤식동무는 더욱 분발해나섰다.

—당에서는 온 나라 인민이 언제나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살것을 바라고있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앞에 떳떳한 화선병사로 살자!

이것은 몇해전 구역안의 로병들로 기동예술선동대를 꾸린 날 김윤식동무가 전우들앞에서 한 말이다. 그때부터 그는 로병기동예술선동대를 이끌고 들끓는 일터들을 찾고찾으며 《화선선동》 길을 줄기차게 걸어왔다.

70살을 넘긴 나이에 육체적 부담도 컸지만 그는 후대들앞에 화선넘새가 나는 1950년대 병사의 모습으로 나서는것이 제일가는 기쁨이라고 하면서 순회공연길을 숫으며 이어왔다. 그는 안해와 함께 전화의 그날 멸적의 총을 잡았던 손에 북채를 틀어잡고 구역안의 로병들을 변함없는 《복무》의 길로 이끄는 대오의 선봉에 섰다.

지난 몇해동안에만도 그는 구역안의 로병들과 함께 수백차에 걸쳐 시안의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나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적위훈담도 들려주고 전시가요도 불러주면서 새 세대들에게 혁명적군인정신, 총폭탄정신을 깊이 심어주었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세가 벌어지는 오늘에도 그가 새겨가는 량심의 자욱은 변함이 없다.

강성대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그가 힘있게 부르는 투쟁의 노래, 그것은 삶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어버이조국에 힘과 용맹을 더해줄 뜨거운 열망의 분출이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해 억세게 나아가는 화선병사의 드림없는 발걸음소리이다.

그는 오늘도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화선길》을 걷고있다. 아름다운 삶의 흔적, 애국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며.

본사기자 정 성 일

독자의 편지

《우리 인민군대가 제일입니다》

우리 사리원시주일탁아소를 찾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꾸려진 노루와 사슴, 꿩과 메추리가 있는 동물우리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합니다.

날마다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을 자아내는 멋진 동물우리에는 인민군 군인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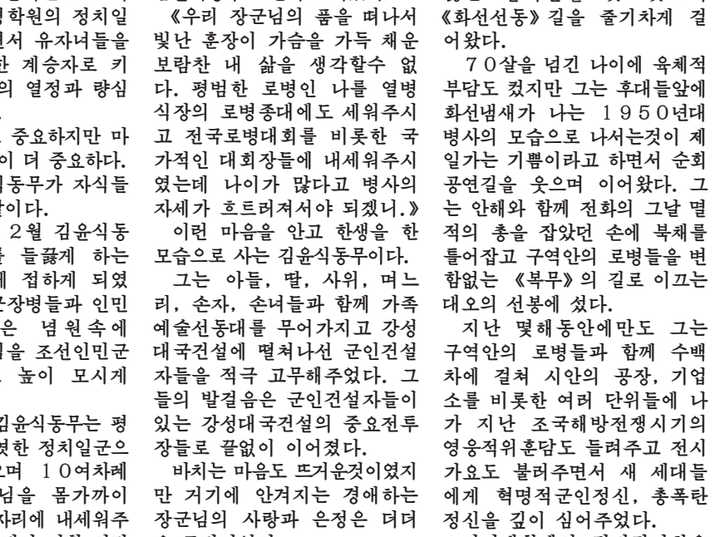
우리 종업원들이 탁아소의 구내를 꾸리는 작업을 한창 할 때였습니다. 웬 군관들이 저희들을 찾아와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사슴이나 노루를 조각으로가 아니라 실지 동물로 보여주는것이 어린이들의 교육에는 더 좋지 않겠는가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과 그리도 꼭 같은지 정말 고마운 생각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였습니다. 10여명의 군인들과 함께 그 군관들이 많은 건설자재들을 가지고 탁아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단며칠동안에 어느모로 보나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슴, 노루, 꿩, 메추리 우리를 번듯하게 일떠세워주었습니다. 군인들이 건설을 끝낸 날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오히려 미리 알고 도와주지 못한것이 미안하다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조선인민군 리명호소속부대 군관 리광학, 한형근동무들을 비롯한 군인동무들이였습니다.

부강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들의 순결한 량심과 구슬땀을 바칠줄 아는 우리 인민군대가 제일입니다.

사리원시주일탁아소
소장 김 경 숙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원군사업을 잘하고있다.
—개천시 군우동 백화숙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북침핵전쟁은 당면한 현실적위험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있다. 우리의 성의와 아량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군사적대결과 긴장은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그 주되는 원인은 북침야망에 사로잡혀 반공화국대결과 군사적도발에 광분하고있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무분별한 새 전쟁도발책동에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번에 남조선피뢰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미제와 공모결탁하여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전쟁연습에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1만여명을 포함한 1만 8 000여명의 방대한 병력과 최신 무장장비들이 집중투입되고 여기에 남조선피뢰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부대들과 민간무력까지 동원되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단순한 불장난 소동이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할것을 노린 북침핵전쟁연습으로서 사실상 예비전쟁이다. 그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뿐아니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이미 북남관계를 파국상태에 빠뜨린 남조선집권세력이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또 한차례의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사태는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모한 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북침핵전쟁발발이 당면한 현실적위험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공공연한 평화파괴행위이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공고한 평화는 오직 대화와 관계개선의 방법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군사적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무모한 전쟁소동을 걷어치우고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조건에서 힘으로 상대방을 해치려드는 경우 어떤 후과가 초래되겠는가 하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무력행사에 의거해서는 북남사이에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을뿐아니라 민족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재난속에 빠뜨리게 된다.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근원으로 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을 벌려놓을 때마다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면서 《방어》를 위한것인듯이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북침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이다. 조선반도에는 《남침위협》이 아니라 오직 북침위협만이 존재하고있다.

이번에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 연습은 해외로부터 증강되는 방대한 미군무력을 조선전선에 신속히 이동전개하기 위한 작전능력을 검토하고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모험적인 핵전쟁각본을 완성하기 위한것이다. 그러한 기도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에서 무모하게 감행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은 보수패당의 반민족적인 대결전쟁정책의 연장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집권초기부터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해칠것을 노린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대결전쟁론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끈질기게 추구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범죄적인 《대북정책》에 기초하여 감행되는 대결전쟁소동은 지금 도수를 넘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얼토당토않은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도발적인 북침모략각본인 《비상통치계획》이라는것을 꾸며낸데 이어 또다시 《통일대계탐색연구》라는 불순한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배포하는 놀음을 벌려놓은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체제대결, 북침광증이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바로 그 범죄적인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현실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보수패당의 류례없는 동족대결소동이 몰아오고있는 북침전쟁의 위험에 대해 각성있게 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남조선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6.15가 날아나고 전쟁이 터질수 있다고 우려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오늘의 사태는 그러한 위구심이 절대로 공연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원칙고수》를 떠들어대면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날뛰지 않았더라면 북남관계가 지금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것이다. 북침열에 들뜬 피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대결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은 저들의 반통일적인 대결전쟁정책에 의하여 초래된 북남관계의 파국적현실을 외면하고 《대북정책》이 그 무슨 《지지》를 받고있는듯이 진실을 파렴치하게 외곡하면서 그것을 집권말기까지 계속 끌고나갈것이라고 궤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침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는 저들의 《대북정책》을 정당화할뿐아니라 어떻게 하나 외세를 등에 업고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흉계를 드러낸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외세와 작당하여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저들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그 무슨 《대화》와 《진정성》이라는것이 북침전쟁도발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피뢰호전광들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을 수수방관한다면 그 후과는 실로 참혹할것이다. 북침전쟁이 터지는 경우 그 피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 당하게 될것이다. 눈앞에 다가오는 북침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해내외의 온 겨레가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보수패당의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멸적의 총창을 비껴들고 정세를 전쟁발발의 문어구로 바싹 몰아가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평화를 바라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신성한 조국강토에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날뛰는 침략자, 매국역적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박 철 준

선군옹호에 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있다

평화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하지만 평화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대한다고 하여 마련되지 않는다. 평화는 오직 평화애호력량의 강력한 군사적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속에서도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이 지켜지고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가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고있기때문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주고있는 선군정치의 위력을 현실로 체험하면서 평화수호의 보검인 위대한 선군정치를 열렬히 격찬하고있다.

오래동안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온 남조선의 자주학회의 한 회원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는 이북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지켜지고있다. 세계정치의 구도와 력학관계도 선군정치를 하는 이북을 축으로 형성되고있다.

선군정치는 바로 김정일령도자님께서 내놓으신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힘은 예속을 이기는 자주의 힘이고 전쟁을 이기는 평화의 힘이며 분렬을 이기는 단결의 힘, 통일의 힘이다.》

남조선의 한 통일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남과 북은 갈라져있어도 우리 민족이 통일에 살고 평화에 사는것은 선군의 힘이 있기때문이다.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을 재난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의이며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존엄과 생존을 담보해주는 애국이다.》

광주의 한 대학생은 선군정치에 대한 찬탄을 금치 못하면서 흥분어린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북미대결에서 북이 련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남민중은 이북의 선군정치의 위력과 고마움을 폐부로 절감하고있다. 이 땅의 평화가 북의 선군정치에서 오고있음을 잘 알고있는 민중의 마음은 더욱 북으로 향하고있다. 총대를 행운의 보검으로 만드신 김정일령수님을 모시여 평화도 미래도 담보되고있다고 우리 민중은 굳게 확신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싸이트에는 《선군정치와 우리 운명》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각계의 이목을 끌었다. 남조선각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싸이트에 접속하여 《선군정치와 우리 운명이 결부되는 리유》, 《만약 선군정치가 없었더라면…》 등 다양한 주제의 론의를 벌렸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선군정치를 평화의 방패, 통일과 번영의 보검으로 높이 칭송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퇴직교수는 자기의 글 《이 땅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군사적대치의 첨예성과 무력배치의 집중도에 있어서 그 어디와도 대비할데 없는 이 땅은 전란의 위험이 닥쳐온적이 한두번이 아닌 초긴장지역이다. 어느때든지 폭발할 〈시한탄〉을 안고있는 이 땅이다. 현대전에서는 전후방이 따로없고 전쟁의 참화도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이 재난을 막고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는것이 북의 선군정치이다.

김정일령수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민족의 군대, 민중의 총대가 없어 겪어야 했던 수난의 력사, 침략과 전횡이 강요되는 오늘의 현실에 종지부를 찍으며 자주와 존엄의 시대, 민중의 복된 세상을 열어나가는 인류리상의 정치방식이다. 북은 선군정치의 조국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국이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어느 한 모임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려면 선군정치를 절대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 이것은 선군정치의 덕을 입는 우리 민중이 당연히 지켜야 할 민족적도리이고 의무이다. 이남민중은 민족의 운명을 어떤 외적도 감히 롱락하지 못하게 억세게 지켜주는 이북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일에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이북의 선군정치에 지지성원을 아끼지 말자.》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애국애족적인 정치이며 선군의 길이야말로 민족이 살길이고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기에 남녘겨레들은 너도나도 선군지지, 선군옹호의 장엄한 대하에 뛰여들고있다.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따르는 남녘의 민심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재파병은 너절한 대미굴종행위

동족을 위한 일에서는 오뉴월에도 손발이 시려 하는 남조선집권세력이지만 미국상전을 위해서라면 팔소매를 걷어붙이며 참으로 극성이다. 아프가니스탄재파병소동은 그 집중적표현이다.

며칠전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로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퇴장한 속에 《아프가니스탄재파병안》을 통과시키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에 따라 남조선당국은 오는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6개월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의 경호》라는 미명하에 350명의 병력을 파병한다고 한다. 남조선보수패당의 아프가니스탄재파병놀음은 친미사대매국에 환장한 그들의 추악한 반민족적정체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은 이미 아프가니스탄파병으로 쓴맛을 본 전례가 있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뢰군의 파병에 분노한 현지의 탈리반무장세력에 의해 거기에 가있던 남조선민간인들이 랍치, 살해당하는 비극적사건이 빚어졌다. 이 사건으로 하여 아프가니스탄파병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의 투쟁이 대중적으로 벌어지고 결국 남조선당국은 파병무력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외교의 최우선》으로 내세운 《실용정권》의 출현으로 아프가니스탄재파병문제가 여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보수당국의 매국적체질을 잘 알고있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병력부족을 운운하며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을 거기에 파견할수도 있다는것을 은근히 시사하였다. 이에 놀란 매국역적들은 상전에게 남조선강점 미군의 병력보존을 애걸하면서 각계의 강력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재파병의 길에 서슴없이 나섰다. 이것으로 보수패당은 미제침략군이 없이는 한시도 연명할수 없는 가련한 식민지주구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의 아프가니스탄재파병놀음에 패재를 올리고있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침략전쟁을 반대하면서 무력철수를 주장하고있는 지금 거기에 대포밥을 섬겨바치려는 피뢰당국의 처사야말로 골치거리를 덜어주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미국은 선심이라도 쓰는듯이 남조선강점 미군병력을 계속 유지해줄것이라고 보수패당의 등을 두드리면서 그를 위하여 앞으로 추가파병도 요구할 의향을 보이고있다. 이에 대해 피뢰군부는 미국의 추가파병요구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받아들일 립장이라고 한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아프가니스탄재파병놀음을 지금 남조선 각계는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참여련대 등 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재파병반대 시민사회단체련석회의와 민주당, 민주로동당, 진보신당을 비롯하여 야당들은 《다른 파병국가들은 철수계획을 짜는 마당에 당국이 미국의 눈짓 한번에 2년 6개월의 재파병카드를 꺼낸것은 미친짓이다.》, 《민간인랍치전례가 있는 곳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곳에 파병하는것은 비참한 죽음을 감수하겠다는것이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우려와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남조선각계의 우려는 결코 무리한것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의 재파병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남조선기업들에 대한 현지무장세력들의 습격사건이 꼬리를 물었다. 다급해난 보수당국이 《현지의 민간인들을 철수》시킨다 어쩐다 부산을 피우면서 그것이 《재파병과 관련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우겨댔지만 공연한 헛수고였다. 그것을 조롱하듯 탈리반무장세력은 남조선당국에 《나쁜 결말을 맞을 준비를 하라.》, 《더이상 부드러운 대응을 하지 않을것이다.》라는 경고를 보내였다.

그런데 탈리반무장세력의 경고보다 더욱 경악을 자아내는것은 그에 대한 보수패당의 태도이다. 이자들은 《이미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며 파병규모를 더 늘일것이라고 공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이 어떤 위험에 빠지든 아랑곳없이 미국의 침략적인 《반테로전》에 적극 추종하겠다고 로골적으로 선언한것이다. 얼마전 《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은 《지방재건을 위한 안전조치》니 뭐니 하고 아프가니스탄재파병을 정당화하면서 파병규모를 더욱 늘일것이라고 떠들었다. 피뢰국방부장관 김태영은 《파병부대가 이미 준비되였으며 명령만 있으면 한달내에 나갈수 있다.》고 고아댔다.

우리 민족내부에 이런 매국역적들이 살판치고있기에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 생명이 무참히 유린되고 조국통일의 길에도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이고있는것이다.

민족자주의 시대인 오늘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역적들이 살아숨쉴 자리는 이 땅 그 어디에도 없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을 당장 걷어치우라

남조선시민사회단체들 집회와 기자회견

남조선의 《한국진보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서울 룡산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제와 남조선피뢰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책동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북침전쟁계획의 공격적성격이 보다 강화되고있으며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이것이 반영되게 된다고 결의문은 밝혔다.

결의문은 미국이 앞에서는 《평화》요, 《비핵화》요 하고 떠들면서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책동에 매달리는것은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북침전쟁연습과 평화협정체결은 결코 량립될수 없다고 하면서 결의문은 호전세력이 대규모전쟁연습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결의문은 미국의 전쟁정책과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야욕실현의 도구인 남조선미국《동맹》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 *

남조선의 《한국진보련대》,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 지휘소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이날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려놓은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조선반도평화실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이번 군사연습의 내용은 북지형숙달을 위한 산악전과 도시지역 전투훈련, 해병대련합훈련, 북지역에서의 민군작전 등 하나같이 북에 대한 침략을 목적으로 한것들이라고 그들은 까밝혔다.

그들은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이 울려나오고있는 때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이야말로 평화실현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이 자기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호전세력이 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그들은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여 집회와 시위 등 광범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 성명 발표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가 3일 미국과 남조선 피뢰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우리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피뢰호전광들이 3월 8일부터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겠다는것을 끝끝내 공표한데 대해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군부가 긴장격화와 대결만을 추구하면서 평화애호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토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가려는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피뢰호전광들이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군사적대응으로 맞받아나갈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강경립장은 정당하고 자위적인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군부가 합동군사연습계획을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미국이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평화협정을 하루속히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사기자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 성명 발표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7일 침략전쟁연습책동에 광분하는 호전광들을 단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작전계획 5027》에 비해 더욱 침략적성격을 띠고있는 《작전계획 5012》와 《작전계획 5029》내용들이 반영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책동에 매달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로써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북에 대한 선제공격연습이라는것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지만 뒤에 돌아앉아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며 호시탐탐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기회만을 노리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호전광들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책동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부산지역의 각계 단체들 기자회견

남조선의 부산평통사, 부산민중련대, 범민련 남측본부 부산경남련합을 비롯한 부산지역의 각계 단체들이 8일 부산의 미국령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제와 피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단죄하였다.

《작전계획 5027》에 따라 감행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성격과 규모, 양상과 기간, 훈련내용 등 모든것을 놓고볼 때 단순히 《방어연습》이라고 우기는 남조선 미국《련합군사령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나고있다고 단체들은 까밝혔다.

단체들은 한쪽에서는 《대화》를 운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을 벌려놓는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평화를 가로막는 장본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온 겨레의 평화념원을 외면하며 북침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리는 호전광들을 반대하여 광범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단체들은 밝혔다.

본사기자

북침전쟁연습과 아프가니스탄재파병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정의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3독통치》

최근 남조선집권세력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실용정권》이 지난 집권 2년간 그 어떤 성과라도 거둔듯이 현실을 외곡하면서 자화자찬놀음을 극성스럽게 벌리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지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유치한 기만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방송은 《청와대》가 지난 2년이 그 무슨 《자신감을 되찾고 발전의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느니 뭐니 하고 광고한것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지금 독선적인 〈국정운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있다. 이전 〈정권〉시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민심을 외면하며 거꾸로 내닫다보니 남북관계는 나빠질대로 나빠졌다. 당국은 4대강사업이 대규모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론과 절차를 무시한채 마구 내밀고있다. 세종시문제에서도 내가 옳으니 무작정 따라오라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늘 민중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뒤따르고있다. 방송장악이 강화되는 등 민주주의가 뒤걸음질치고있는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것은 지난 2년간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남조선에 총체적파국을 몰아온 피뢰보수패당의 죄악에 대한 단죄라고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실용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되였는데 응답자의 67%가 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였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높은 비률로 비난한것이 바로 《3독》(독선, 독단, 독주)으로 일관된 집권세력의 독재적통치방식이였다고 한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거스르는 보수패거리들의 독재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정치는 란장판이 되고 경제와 민생이 거덜이 났으며 초보적인 민주주의마저 깡그리 말살되고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이르렀다.

지금 남조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세종시문제를 보자.

알려진것처럼 《잃어버린 10년》을 떠벌이며 이전 《정권》시기의 모든것을 뒤집어놓고있는 보수패당은 그 무슨 《효률성》을 구실로 이미 25%가량이나 추진되였던 《세종시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그와는 전혀 다른 《세종시수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현 집권세력이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적절차를 무시하고 진보세력들, 각계층 인민들의 의사를 강압적으로 억누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에 대한 야당들과 남조선각계의 반발이 거세여지자 바빠맞은 집권자가 방송에 출연하여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것 역시 민심을 거역하는 《세종시수정안》을 무작정 정당화하면서 그 실행을 기어이 강행하려는 또 하나의 오만한 행위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야당들과 언론들은 그 방송출연을 《민중과의 소통을 외면한 대화》, 《저들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려는 행위》로 강하게 비난하였다.

《4대강정비사업》도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짓밟는 보수패당의 반민주적이며 독선적인 통치방식이 빚어낸것이다.

지금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은 당국의 《4대강정비사업》은 이름만 바꾼 《대운하사업》이라고 폭로하면서 그것을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이러한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뻔뻔스럽게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4대강정비사업》을 강행추진하고있다. 《국회》에서 그 실행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착공식까지 벌려놓고 《4대강살리기》니 뭐니 하고 요란히 광고하며 오히려 민심을 우롱하는 보수집권세력의 망동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실용》독재의 반인민적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지금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된것도 민족공동의 자주통일지향과 념원이 어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집요하게 고집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적망동에 기인된다.

한마디로 《실용정권》의 지난 2년간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오만과 독선이 판을 친 죄악의 나날이였다. 얼마전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지난 2년간은 《민주화를 압살하고 독재시대를 되살린 2년》,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간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킨 2년》이라고 규탄해나선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고 독재통치를 일삼으며 반역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하는 보수패당을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단호히 심판할 의지를 벼리고있다.

본사기자 복 은 희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떨쳐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의 대전충남통일련대가 3.1인민봉기 91돐에 즈음하여 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를 폭발시킨 날이며 자주적권리를 짓밟는 침략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한 날이라고 지적하였다.

일제가 40여년간의 통치기간 100여만명의 무고한 우리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고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랍치, 련행하여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았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끌어간것을 비롯하여 천추에 용납 못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오히려 과거사외곡과 독도강탈에 날뛰며 변함없는 침략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더우기 현 《정권》이 친미, 친일사대굴종정책을 일삼으며 이에 항거하는 각계층 민중을 마구 탄압하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온 민중이 91년전 그날의 민족자주정신을 이어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의한 치욕스러운 력사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 *

남조선의 1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서울시청앞광장에서 3.1인민봉기 91돐에 즈음하여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3월 1일은 일제의 총칼밑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을 위해 들고일어나 싸운 력사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그날의 자주정신을 이어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민족의 화해를 이룩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파업이 온 겨레앞에 나서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남과 북은 둘로 갈라져 살수없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분렬의 아픔을 끝장내고 민족의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자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온 겨레가 단결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저지시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엄중한 사태의 책임은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매우 첨예하다.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엄혹한 국면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정세는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해나갈것을 긴절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무분별한 군사적모험으로 정세를 폭발계선에로 더욱 몰아가고있다.

최근 미국의 호전광들은 첨단기술로 장비된 다량의 해상초계기들을 올해중으로 남조선에 넘겨주기로 하였다. 실지로 그러한 조치가 실천에 옮겨지고있다. 적들은 해상초계기들의 남조선배비를 그 무슨 《전투력확보》를 위한것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군사대상물들에 대한 원거리 및 정밀타격을 가능케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제2조선전쟁의 불을 지르고 전조선을 가로타고앉으려고 망상하는자들의 전쟁흉계의 발로이다.

미제는 언제 한번 대조선침략야망을 버린적이 없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무력을 포함한 대규모의 현대적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면서 불의에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고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첨단기술로 장비된 해상초계기들의 남조선실전배비놀음은 그 한 고리이다. 이를 통하여 미제는 남조선강점 미군과 괴뢰군의 공격능력을 더욱 높이고 전쟁준비를 보다 완성하려 하고있다.

최신식해상초계기배비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는 남조선호전광들과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려놓고있다. 그들은 지난 8일부터 10여일간 벌어지는 이 전쟁연습에 1만 8 000여명의 방대한 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을 집중투입하고 남조선군의 군단급, 합대사령부급, 비행단급부대들과 민간무력까지 동원하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대대적인 무력증강과 후방침투, 지상공격과 해안상륙, 강습작전으로 일관된 모험적인 시험공격작전이며 우리 공화국을 지상, 해상, 공중으로부터 립체적으로 기습타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다. 미국의 호전광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년례적인 훈련》이니, 《방어》니 하는것은 그의 공격적성격과 침략성, 위험성을 가리워보려는 기만적인 넉두리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우리를 겨냥한 각이한 공격작전이 펼쳐졌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침략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우리 공화국은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는것을 미리막기 위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를 통해 미국이 피뢰들과 합동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전쟁연습을 벌리지 말데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그 후과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히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대규모전쟁연습을 강행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평화파괴행위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조선반도정세는 《통제불능》의 위기에 처하고 군사적대결상태가 극한점에 이르고있다.

이번 사태로 하여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비핵화실현,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립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미국은 오로지 힘에 의한 대조선압살을 노린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 이것이 우리가 미제의 이번 전쟁소동을 통하여 다시금 찾게 되는 결론이다.

미국이 광란적인 군사적소동을 우리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묘사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벌릴 때면 례외없이 우리의 있지도 않는 《군사적위협》에 대해 벅적 떠들며 소란을 피웠다. 이번에도 그따위 수법을 쓰고있다. 이번 전쟁연습이 립증해주는바와 같이 군사적위협의 가해자는 미국이다. 우리는 그 피해자이다. 미제가 우리의 《군사적위협》설을 제창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놓는 거꾸로 된 미국식론리이다. 미호전광들이 줴쳐대는 우리의 《군사적위협》설은 곧 북침전쟁론이며 침략의 구호이다.

물과 불은 상극이듯이 대화와 전쟁소동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뒤에 돌아앉아서는 딴꿈을 꾸면서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을 강화하는 미국의 망동은 당근과 채찍을 내흔들며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교활하고 철면피한 량면술책에 불과하다.

대화는 그 목적자체가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를 표방하며 딴장을 보려 하고있다. 한쪽으로는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을 벌려놓고 그 무슨 《대화》를 통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떠드는것은 대화와 평화에 대한 우롱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미국의 무모한 전쟁연습은 대화에 칼질하고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차단하는 반대화, 반평화적인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대화와 평화를 바라지만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와 전쟁에 다같이 준비되여있다.

우리의 전쟁억제력강화조치는 미제의 가증되는 반공화국군사적압살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천백번 정당한 자위권행사이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할수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것이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선군총대만이 우리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줄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과의 첨예한 군사정치적대결과정에 얻은 귀중한 교훈이며 진리이다. 총대가 약하면 평화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도 수호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군사적팽증은 우리를 전쟁억제력강화의 길로 더욱 떠밀어줄뿐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다. 미제가 감히 제2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모든 군사적수단을 총발동하여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미국의 모험적인 전쟁소동으로 사태는 매우 험악하게 번져지고있다.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채 일 출

《조선의 강성대국건설방식》

메히꼬단체 블레찐 발행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에서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조선의 강성대국건설방식》이라는 제목의 블레찐을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국제사회는 조선이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주목하고있다.

조선은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경제건설에 총집중하여 경제강국으로 된다면 조선은 명실공히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이 최근년간 엄혹한 경제적난관을 겪은것을 고려할때 강성대국건설은 결코 헐한 목표가 아니다.

조선은 어떤 방식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려고 하는것인가?

첫째로, 조선은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있다.

이것은 조선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방식이다.

조선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은 지난 세기 말엽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와 류례없는 자연재해들로 인한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조선이 사회주의기치를 꿋꿋이 지켜낸 사실이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이러한 정신력이 오늘날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둘째로, 조선은 철저히 자체의 자원과 원료, 힘과 기술에 의거하는 자력갱생의 방법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드팀없는 신념으로 간직되여있다.

조선이 만난을 이겨내고 승리만을 떨치게 한 자력갱생이 강성대국건설에서도 비상한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셋째로, 조선은 어느 한 지역이나 단위에 시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해나가는 방법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있다.

넷째로, 조선에서는 령도자께서 현지지도를 통하여 인민대중을 무한히 고무추동하는 방법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진두에서 이끄신다.

올해에 들어와 온 나라 방방곡곡에 대한 그이의 현지지도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볼 때 더욱 강도높이 진행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현지에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고무해주신다.

다섯째로, 조선은 철저히 사회주의적방법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나라의 모든 경제적잠재력이 통일적으로 장악되고 계획적으로 동원리용되고있다.

조선에서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이것은 오늘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현실적으로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자본주의세계전반을 휩쓸고있지만 조선은 끄떡하지 않고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 회의 레바논에서 진행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 회의가 최근에 레바논의 바이루트에서 진행되였다.

련맹 총리사회 성원조직들을 포함하여 30여개 나라의 근 40개 청년학생조직 대표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지난해 련맹사업을 총화하고 올해사업방향을 토의하였으며 일련의 문건들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정치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침으로써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세계민주청년련맹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수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구하는 국제적련대성활동을 광범히 벌릴것을 련맹의 전체 성원조직들과 친선적인 단체들에 호소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2010년 행동계획은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 조선전쟁발발 60년, 조선해방 65돐 등 여러 계기들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는 조선청년들

외국인들이 강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보람찬 삶을 빛내여가고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찬양의 목소리는 외국인들속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 디아고 알렉싼드르 페라즈 비에이라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그들은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을 통채로 맡아 건설하였다.

청년들이 이렇듯 커다란 위훈을 세우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청년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로씨야련방공산주의청년동맹 울라지보스또크시위원회 1비서 아나똘리 돌가체브는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오늘도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대표단 단장 동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조선청년들은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바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울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중국 강서성청년일군참관단 성원 량용은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의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이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청년들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데서 앞장서고있다.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본사기자

또고 대통령 재선

또고에서 포르 에쏘짐나 그나씽그베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그는 4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을 폭로

이란대통령 마호무드 아호마디네자드가 2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을 폭로단죄하였다.

그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서방의 자본주의경제체계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고 하면서 세계금융부문에서 난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근원은 다름아닌 서방식자본주의제도에 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담보가 없는 딸라를 무려 29조 US$이상이나 발행하여 다른 나라들의 상품과 바꾸었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인류력사상 가장 큰 절도행위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금융 및 무역거래에서 미국딸라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스라엘의 폭행을 단죄

팔레스티나민족당국 대변인이 5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행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최근 동부꾸드스에서 이스라엘당국이 경찰들을 내몰아 팔레스티나유적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탈책동에 항의하는 팔레스티나인시위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많은 부상자를 낸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스라엘이 폭력의 분위기를 고취하면서 지역을 종교전쟁에 몰아넣으려고 책동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까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신형독감피해

타이보건성은 3일 나라에서 A(H1N1)형돌림감기에 걸려 앓고있던 3명의 환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에서도 신형독감으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그 수는 78명으로 늘어났다.

이 나라들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협조

에질트와 중국이 3일 군사분야에서 호상협조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1일 브루네이와 그루지야는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경제장성목표

캄보쟈에서 앞으로 몇년안에 경제장성률을 8~9%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2월 27일 이 나라 경제 및 재정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수력발전소건설계획

니까라과에서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

수도로부터 280km 떨어진 곳에 일떠서게 될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22만kW에 달하게 된다.

공사는 올해 4월에 시작되여 2014년에 끝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수력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언제주변의 900ha 면적에 나무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게 된다. 정부에서 발전소건설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였다 한다.

전염병방지사업

앙골라에서 말라리아방지 깜빠니야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수십만개의 모기장이 공급되였다. 이에 따라 말라리아발생률이 줄어들고있다 한다.

한편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소아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서부 및 중부아프리카나라들에서 6일부터 소아마비예방접종깜빠니야가 시작되였다. 이번 깜빠니야 기간 총 8 50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접종을 받게 된다 한다.

본사기자

경영형편 악화, 실업자 증대

◎에스빠냐의 《이베리아》항공운수회사는 2월 25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기업체에서 입은 손실액이 2억 7 300만€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2월 22일 일본련쇄점협회는 올해 1월에 나라의 주요소매업체들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인들속에서 나라의 경제형편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2월 23일 미국의 경제조사단체인 《협의위원회》는 올해 2월현재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나타내는 소비자신용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10.5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있다. 4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월 27일까지의 1주일동안에 나라에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46만 9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에스빠냐에서 올해 2월에 실업자수가 8만 2 100여명 늘어나 413만 600여명에 달하였다. 2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뛰르끼예에서는 지난해 실업자수가 350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보다 86만명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2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유럽에 충격을 준 네데를란드련립정부의 붕괴

지난 2월 20일 유럽의 서부에 위치한 네데를란드에서 《정치지진》이 있었다. 정부가 해산된것이다.

해산되기 전에 네데를란드련립정부는 3개의 정당으로 구성되여있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네데를란드군 철수문제를 놓고 집권여당들이 옥신각신하였다.

그가운데서 두번째로 큰 정당인 레이버당은 정부가 원래의 계획대로 아프가니스탄주둔 자국군병력을 올해 8월부터 무조건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당들은 정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자국군의 아프가니스탄주둔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상차이는 아프가니스탄문제를 놓고 무려 16시간동안이나 진행된 네데를란드내각회의에서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레이버당은 련립정부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였고 그로 하여 국회에서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련립정부는 해산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외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네데를란드의 민심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자국군철수를 바라고있다고 전하였다.

오늘 네데를란드의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이 일으킨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부정적으로 대하고있으며 자기의 혈육들이 테로와 보복의 란무장으로 변한 아프가니스탄땅에서 헛되이 피를 흘리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여있는 네데를란드군병력은 약 2 000명이며 지금까지 2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문제로 하여 정부가 해산되였다는 소식에 접한 절대다수의 네데를란드국민들은 잠정정부에 자국군의 조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으며 그 여파는 네데를란드경내를 벗어나 유럽지역으로 확대되고있다.

최근 네데를란드잠정정부 수상은 자기 나라가 원래의 계획대로 올해 8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병력을 철수시킬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은 네데를란드잠정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민심을 따른것이라고 평하였다.

네데를란드련립정부의 해산은 영국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영국의 정객들속에서는 자국정부가 네데를란드사태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음으로써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할것이 아니라 정책의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네데를란드에서 련립정부가 붕괴된 후 영국에서는 레이버당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가고있으며 그 물살을 타고 보수당을 비롯한 야당세력이 여당세력에게 맹공격을 들이대고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도이췰란드에서도 높아가고있다.

지난 2월 22일 도이췰란드의 어느 한 신문은 론평을 발표하여 네데를란드련립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문제로 하여 해산된 첫 정부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나토에 대한 경고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네데를란드에서 련립정부가 해산된 후 도이췰란드에서는 좌익당이 아프가니스탄주둔 자국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주장하고있으며 집권련합과 사회민주당, 록색당이 조건부적인 철수를 요구하고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있는 도이췰란드병력은 4 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프랑스는 미국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파하지 않을 립장을 표명하였다.

여론들은 프랑스정부가 이런 립장을 취하고있는것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야당세력의 커다란 압력에 직면해있기때문이라고 평하였다.

네데를란드련립정부의 붕괴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략에 적극 추종하고있는 이딸리아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얼마전 이딸리아국방성은 자기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계속 증파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딸리아외무상은 정부가 다음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력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려 한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네데를란드에서의 련립정부붕괴는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파견한 유럽의 여러 나토성원국들에 충격을 주었으며 그 영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략, 《반테로전》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서 남 일

단평 더러운 모해

최근 미국에 찾아간 이스라엘국방상 바라크가 그 무슨 《토론회》마당에서 《나는 이란인들이 핵폭탄을 이웃나라에 투하할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제법 딴전을 부렸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핵공격》가능성에 의혹을 표시한 그의 소리는 얼핏 듣기에는 아무런 문제성도 없는것 같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란을 모해하기 위한 더러운 음모가 깔려있다.

바라크는 이란이 《핵폭탄》을 가지고있다는 전제밑에 그런 소리를 하였다. 이것은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기정사실화하자는것이다. 말하자면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핵무기개발》로 오도하여 이 나라에 대한 국제적제재를 성사시켜보려고 그따위 나발을 불어댄것이다.

미국에 찾아간 바라크가 그런 소리를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러나 바라크가 제아무리 이란을 모해하려고 세치 혀바닥으로 말재간을 부려도 그것은 헛된짓이다.

국제사회계는 미국의 비호와 협력밑에 저들이 개발한 핵무기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이란의 《핵무기개발》과 《핵공격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이란제재와 압력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음흉한 속심을 꿰뚫어보고 조소를 보내고있다.

리 현 도

도적이 매를 드는 격

한해가 멀다하게 정부가 자주 바뀌고 정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오락가락하는 언동으로 세상사람들을 웃기는 희비극이 수시로 연출되는 일본에서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생겨났다. 그 무대는 일본법정이다. 지난 2월 일본법정에서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성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 구태여 검찰측의 말을 빈다면 법정에 나선 2명의 《그린피스》성원들은 《절도죄》로 기소되였다.

하다면 《그린피스》성원들의 《절도죄》란 어떤것인가.

법정에 나선 《그린피스》성원들로 말하면 일본의 불법적인 고래잡이를 반대하여 투쟁해온 사람들이다.

2008년 5월 그들은 일본의 한 어업회사가 고래고기를 개인수화물로 몰래 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하여 그들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고래고기류통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문제의 수화물에는 23kg의 고래고기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린피스》성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해당 회사를 일본사법당국에 기소하였다. 그런데 보는바와 같이 법정에 죄인으로 나선것은 일본회사가 아니라 《그린피스》성원들이다.

일본검찰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수화물을 중간에서 가로챘기때문에 엄중한 《절도혐의》가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조사놀음을 벌려오다가 법정에 내세웠던것이다. 이야말로 도적이 매드는 격이다.

《그린피스》성원들의 수화물검사를 통해 폭로된 일본어업회사의 불법적인 고래잡이를 두고 일본은 그에 대해 번명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 원래 일본은 고래잡이에서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고래사냥국》이다. 1960년대에만 하여도 일본은 수만t의 고래를 잡아 팔아먹었다. 일본의 《고래사냥군》들은 가공모선까지 바다에 끌고나가 잡은 고래를 그 자리에서 통졸임 등으로 가공하여 큰 돈벌이를 하였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일본을 두고 《고래까지 울리는 나라》라고 조소하였겠는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가 고래자원의 멸종을 막기 위해 상업적목적의 고래잡이를 금지시킨 후에도 일본의 고래사냥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들은 상업용으로부터 《과학연구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고래잡이를 끈질기게 계속하고있다. 그들의 고래잡이가 철저히 상업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는것은 일본포경선에서 일하는 어부들자신이 말하고있다.

일본은 보통 한해에 850마리정도의 고래를 잡는데 이것은 과학연구용기준수치를 훨씬 초과하는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교래잡이가 《과학연구활동의 일환》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상업용고래잡이를 목적으로 바다를 마구 싸다니던 일본의 조사포경선단이 그를 저지시키려는 환경보호단체의 단속정을 들이받아 국제사회계의 격분을 자아낸것은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지금 《그린피스》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들은 일본의 불법적인 고래잡이를 문제시하여 다불러대기 위한 공세를 준비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이 법정을 악용하여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으로 애꿎은 《그린피스》성원들을 《도적》으로 몰아대고있으니 이야말로 파렴치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아마도 일본은 자국의 범죄적인 고래사냥을 은폐하고 그로 하여 날아들게 될 비난의 화살을 모면할 속심밑에 이런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하였을것이다. 하긴 력사에 전무후무한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와 반성은커녕 그것을 미화분식하며 저들의 리익에 따라 검은것도 희다고 우겨대는 일본이고보면 그쯤한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간특한 일본의 얕은 수에 넘어갈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일본의 도덕적 저렬성과 파렴치성을 더욱 드러내보여줄뿐이다.

본사기자 배 금 희

자연피해

◇도미니까에서 최근 가물이 계속되여 피해를 입고있다.

가물로 강들의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주민들에 대한 물공급이 어려운 상태에 처하였다. 하루평균 물부족량은 6 300만gal에 달한다 한다.

정부에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아이띠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긴급소개되였다.

또한 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농경지들이 물에 잠기였으며 교통이 마비되였다.

나라에서 구제작업이 진행되고있다 한다.

◇서유럽나라들에서 최근 시속 120~150km의 강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강풍으로 1일현재 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워 넘어지고 많은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였다.

또한 주민지역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렬차와 비행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01040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 집 위 원 회